| 현불 논단 |



주경 스님
수덕사 부주지

도력보다 매력

봄 오는 산사 보려 떠난 만행
도중 만난 노부부와 대화하며
"초파일 수덕사서 봐요" 약속

사리불, 길 위 인연으로 출가
마승 비구 위의 · 태도에 '매료'
250명 이끌고 부처님 제자돼

매력은 누구에게나 있는 능력
불자대중 모두 마승의 후계자
우리는 치명적 매력을 가졌다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렵고 힘들어도 봄은 그 화창함을 발산하고 있다. 산 숲 사이사이 분홍빛 진달래들이 화사하게 피어나고, 마을 어귀에는 노란 개나리가 휘늘어졌다. 작년 보다 일찍 피기 시작했다는 벚꽃들도 온통 흐드러지게 피고 있다.

감염병으로 인해 참고 견디던 사람들이 차마 이 아름다운 봄을 그냥 지날 수 없어서 봄 햇살과 봄바람을 맞이하러 나왔다. 어찌보면 세상을 휩쓰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걱정스럽고 위태로운 하루를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것이리라.

나도 봄이 오는 산사들을 즐기고 싶어서 며칠 산길을 걸어 근처 몇 군데 절을 다녀왔다. 하루는 도중에 한 쌍의 노부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문득 남편이 말을 건넨다.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유?"
"네, 저 뒷산 암자에 다녀옵니다."
"아까 저기부터 걷고 있던데, 그 절에 사시유?"
"아뇨, 수덕사에 삽니다."
"그런데 왜 먼 길을 걸어 다니고 있슈?"
"하하, 봄이 좋아서요."
"그럼 초파일에는 수덕사에 계실거유?"
"네, 그럴 겁니다."
"그류, 그럼 초파일에 수덕사에서 봐유."

얼굴도 몰랐고, 이름도 사는 곳도 모르는 노부부는 그렇게 자신들의 길을 갔고 나는 수덕사로 돌아왔다. 오는 도중 문득 웃음이 나며 마음이 즐거워졌다. 나도 저분들을 모르고 저분들도 나를 모르는데, 그런 사이인 우리는 그렇게 초파일에 수덕사에서 만나기로 한 것이다. 은근히 초파일에 그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하는 기분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길을 가다가 사람에 반하고 약속을 잡은 사람은 부처님 제자들 중에도 있다. 바로 〈반야심경〉의 주인공인 사리불존자이시다. 사리불 존자는 우연히 길에서 마승(馬勝, Assaji)비구를 보게 된다. 마승 스님은 부처님 최초 다섯 제자의 한 분이다. 사리불존자는 마승 비구의 기품 있고 위의가 단정한 태도를 보고 그 수행자다운 모습에 한 눈에 반해버린다. 그 인연으로 절친한 도반인 목련존자와 250명의 수행자들과 더불어 부처님을 찾아와 모두 함께 제자가 된다. 사리불존자를 부처님께 이끈 마승 비구의 기품과 위의를 세속적인 말로 옮긴다면 '치명적인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매력'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을 뜻한다. 사리불존자는 목련과 250명의 수행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맡겨도 좋을만한 치명적인 매력을 마승 스님에게서 느꼈던 것이다.

수년전 어떤 불자님이 내게 말했다. "스님은 도력보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절에 오는 거예요!" 그때 이후 '도력보다 매력'이라는 말은 재미있는 화두가 되었다. 출가든 재가든 불자라면 모두가 도력에 관심이 있다. 하지만 '도력' 참 알기 어려운 것이다. 신통력이라도 발휘하지 않으면 알아볼 방법이 없다. 하지만 '매력'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저절로 눈이 가고 몸이 가고 마음이 가는데 어찌 알 수가 없겠는가!

우리 스님들은 과연 매력적인가? 우리 불자들은 정말 매력적인가! 마승 스님의 매력의 근원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흠뻑 빠져서 지냈기 때문이라고 본다. 우리 스님들과 불자들은 마승 스님이 가졌던 매력의 계승자이며 상속자이다. 그래서 불교가 이처럼 치명적이게 매력적이고 근사한 종교일 수 있는 것이다.

잠시 우리 불교와 불자들에게 상속된 봄과 같은 매력에 대해 생각해 본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정말 매력적인 종교에 귀의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김형중의
붓다설법학

부처님은 비유로 설법했다

〈불설비유경〉과 〈빈두설경〉에 보면 부처님이 사위국의 승광왕에게 설한 무상한 인생을 '흰 쥐와 검은 쥐의 비유'를 통해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으로 설한 이야기가 있다.

"먼 옛날에 어떤 사나이가 광활한 광야를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친 코끼리가 나타나 달려들었다. 사나이는 온 힘을 다하여 도망을 치다가 우물을 발견하고, 우물 안으로 뻗은 등나무 넝쿨을 붙잡고 그 속에 간신히 몸을 피했다. 정신을 차리고 바라보니 우물 바닥에는 무서운 독룡이 입을 벌리고, 사방에는 네 마리의 독사가 혀를 널름대고 있다. 위를 쳐다 보니 넝쿨을 흰쥐와 검은 쥐가 번갈아 가면서 갉아먹고 있다. 들판은 들불이 맹렬히 일어나고 성난 코끼리는 우물 밖에서 으르렁대고 있다. 그런 와중에 사나이는 등나무 넝쿨이 흔들리면서 떨어지는 달콤한 벌꿀의 다섯 방울의 꿀물을 받아먹다가 거기에 취하여 자신이 처한 극한 상황을 잊어버렸다."

이 비유에서 사나이는 미혹한 중생, 광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 코끼리는 무상한 시간, 우물은 생사의 현장, 넝쿨줄기는 수명, 독룡은 죽음, 네 마리 독사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사대(지수화풍), 흰 쥐와 검은 쥐는 낮과 밤, 들불은 늙음과 병듦, 다섯 방울의 꿀물은 오욕락을 의미한다.

'흰 쥐와 검은 쥐의 비유'는 우리가 무상하고 고통에 포위된 한계상황 속에서 있으면서도 어리석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재물욕,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등 오욕락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한심한 인생임을 일깨워 주는 부처님의 아주 멋진 비유 설법이다.

톨스토이는 '참회록'에서 불교경전에 나오는 이 '흰 쥐와 검은 쥐의 비유'를 들어서 인생의 무상과 깨우침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톨스토이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허망하게 낭비할 수는 없음을 투철하게 반성하고, 어제의 그릇된 삶에서 전미개오(轉迷開悟)한 참회와 성장의 새로운 삶을 그의 소설 속에서 제시하였다.

비유(譬喩, 比喩)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말할 때 그와 비슷한 다른 현상이나 사물을 끌어대어 표현하는 효과적인 문학적인 서술양식이다. 비유는 부처님께서 중생에게 깨달음의 진리를 쉽고 재미있게 설법하기 위하여 가장 널리 쓴 언어적 표현 방법이다.

부처님의 설법을 기록한 불교경전을 내용의 형식과 성격에 따라 12가지로 구분하여 나눈 데서 〈십이부경(十二部經)〉이라고 한다. 그 가운데 '비유'로서 가르침을 설한 '아바다나(阿波陀那; Avadana)'가 있다.

〈법화경〉 비유품의 화택(火宅) 비유와 궁자유(窮子喩), 약초유(藥草喩), 화성유(化城喩), 의주유(衣珠喩), 계왕유(髻王喩), 의자유(醫子喩) 등 '법화 칠유(法華七喩)'는 경전 비유문학의 최고봉이다.

법사는 설법의 주제가 정해졌으면 기승전결을 갖춘 한 편의 드라마 각본을 쓰듯이 설법안(설계도)을 작성해야 한다. 주제에 적합한 경전말씀을 찾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예화와 비유를 연구한다. 사람들은 재미있는 이야기(스토리텔링)와 품격 있는 문학적인 비유를 좋아한다. 언어문자의 꽃은 문학이고, 문학의 대표적인 표현방식은 비유와 상징이다.

〈前 동대부여고 교장〉

社 說

유튜브 · 앱, 아우를 플랫폼 기대

CNN은 미국 내 코로나 확산 후 흥미로운 기사를 내보냈다. 디팩 초프라의 명상 스트리밍 서버가 다운이 됐다는 보도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명상을 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키면서 사이트가 먹통이 됐다. 변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일선 사찰과 스님들은 이같은 변화에 맞춰 스트리밍 법회 등을 시작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콘텐츠를 하나로 모을 불교계의 플랫폼이 없다는 것이다.

불교 신행의 트렌드는 이미 크게 바뀌고 있다. 직접 사찰에 가서 기도를 하는 데서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신행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기도 뿐만이 아니라 신도들 간의 소통도 스마트폰으로 해결한다. 이른 신행활동을 위한 스트리밍 서비스와 소셜 네트워크가 코로나19사태로 많이 증가했다. 예전 같았으면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 불교행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산중불교의 이미지가 있는 불교계에는 하나의 기회다. 도심포교에 있어 이웃종교에 비해 뒤쳐진 불교가 새로운 미디어의 힘으로 도약할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 뉴미디어 플랫폼은 그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불자들이 손 쉽게 한 번에 불교계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사회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새로운 일상생활이 시작될 것이라 진단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언택트 문화가 도입되고 인공지능과 증강현실, 사물인터넷 및 드론 등 지난해 불교계에 화두로 던져진 4차 산업 혁명이 다시금 촉발될 것이란 진단이다. 새로운 시대 불교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새 전법이 선보이길 기대한다.

'온라인 신행' 지원 환영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9일까지 연장되면서 정부가 온라인 종교활동을 지원해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4월 8일부터 5월 말까지 온라인 종교활동을 지원키로 하고 지원책을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온라인 종교활동이 어려운 200인 이하 중소 종교단체로, 문체부와 과기부는 스마트폰 기반의 영상 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기술 지원으로는 카카오 TV · 네이버 밴드 라이브 등의 인터넷 생방송 동영상 플랫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매뉴얼)를 제작 · 배포하고, 전용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 종교활동과 더불어 비대면 신행활동으로 주목되는 '승차(乘車) 종교활동'을 위한 부처간 협력도 이어진다. '승차 종교활동'은 주차장 등 한정된 공간 내에서 종교활동 실황을 소출력의 무선국을 활용해 송출하고, 신도들은 자동차 내에서 이를 청취하는 새로운 형태의 종교활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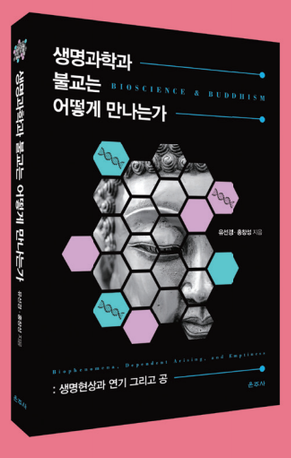
이 같은 정부의 지원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약속한 부분이다. 정 총리는 4월 5일 종교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 비대면 종교활동에 대한 지원책 마련, 종교시설의 방역물품 확보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선책이다. 이를 위해 불교는 법회를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불교계는 동영상 법문과 예불을 통해 '온라인 신행'이라는 새로운 신행문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번 정부 지원을 불교계가 적극 활용해 '온라인 신행'을 정착시키는 토대로 삼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불교를 통해 생명현상을 이해하고,
생명현상을 통해 불교를 이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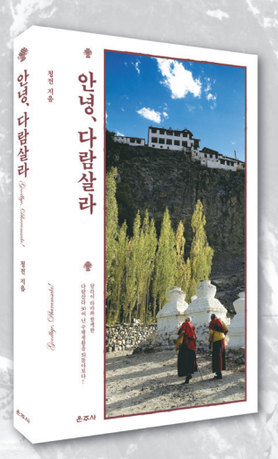


생명과학과
불교는
어떻게 만나는가

본질주의에 입각한 서구의 생명과학은 생명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불교의 연기와 공의 관점만이 현대 생명과학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유선경, 홍창성 지음/국판 무선/336쪽/값 15,000원

30년 동안 다람살라에 머물며, 스승 달라이 라마를 모시고
수행과 봉사의 삶을 살아온 청전스님이 풀어놓는 이야기들!



안녕, 다람살라

달라이 라마를 직접 모시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일화들!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하고 티없이 맑은 노스님들의 이야기!
오로지 부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민중들의 소박하고 감동적인 모습들!

청전 지음/국판 무선/200쪽/값 14,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